

자연의 혜택을 받은 인너 소재들

식물이나 동물, 광물 등의 천연물(天然物)에서 뽑아낸 성분이 다양하여, 이들 성분으로 가공한 실이나 직물도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항균방취성(抗菌防臭性)을 지니게 하고자 편백(扁柏, 檜木), 다(茶), 감, 알로에, 감초(甘草) 등의 식물에서 뽑은 성분으로 가공한 상품들이 있으며, 게나 새우의 딱딱한 껍질에서 뽑아낸 성분으로 가공한 상품도 비슷한 효험이 있어 유명하다. 자작나무(白樺)의 성분으로 흡열성(吸熱性)을 지니게 한 상품도 있다. 광석에서 뽑은 성분으로 마이너스·이온(minus ion)을 만들어 내는 특성을 지니게 한 섬유도 있다. 이들 성분들이 인너(inner)업계에서 의(衣)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

인너나 나이트(nightie : 잠옷)에 있어서도 인공적(人工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천연물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다. 소재로서는 대나무(竹) 소재나 일본 종이 소재로 만들어진 섬유제품도 있고, 직물이나 니트에서 봉사(縫絲)에 이르기까지 면 100%만을 사용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속옷도 있다.

최근에는 가장 기본적인 속옷이 적어지면서 이를 보충해 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아크릴 등의 기능성 합섬 상품이 점차 많이 눈에 띄게 되었는데, 이는 이들 합섬상품을 천연성분으로 가공하였다는 사실을 크게 선전하고 있기도 하다.

군제(郡是)가 시장에 내놓고 있는 스킨·케어(skin·care)가공인 “퓨어·케어(Pure·care)”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유아, 노령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층을 대상으로 순조롭게 판로를 넓히고 있다. 이 가공은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세리신(sericin)과 동물의 경단백질(輕蛋白質)인 콜라겐(collagen)과 게나 새

우의 껍질에서 뽑은 키토산(chitosan)의 3가지 천연 보습 성분(天然保濕成分)으로 되어 있으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부인용 내의에서는 금년 춘하절에 “쾌적공방(快適工房)”, “츄니카”, “로아쥬”, “CFA 100” 등의 여러 브랜드 상품이 총동원될 것 같다. 봄이나 여름철에 내의를 입지 않는 여성을 위하여는 “하나만 입으면 의복내의 수분을 잘 조정해 주는 T-셔츠”라고 선전하고 있는 상품도 있다.

이외에도 천연 실크성분의 흡습·방습 기능으로 맨살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실크·프로테인” 가공이나 천연광석의 미네랄 성분과 “마이너스·이온”을 발생시키는 “칼서” 등도 금년 춘하절에 상품화되어 시판될 것이다.

“아즈” 전문기업은, 산학협동으로 개발한 “아토피어” 가공의 여러 상품들을 “파워·오브” 브랜드로 시판하게 된다. 이 상품은 피부 알레르기 질환에 효력이 있는 천연식물유의 “ γ ·리놀렌산(감마-linolen酸)” 성분을 함유에 고착시킨 상품으로서 어린이용 셔츠 및 바지와 장갑,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保護帶) 등으로 시판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모니터·테스트(monitor test)”에서 여성용품에도 많은 요구가 있어 여성용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남자용으로는 강연사로 잔주름이 있는 크레이프(crepe)로 시원한 느낌을 주거나 “빈쑤스미(備長炭)”를 셀룰로즈에 이겨넣은 천연 소재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후지보의 “키실리프레시(Xylifresh)”는 키실리톨(Xylitol : 자일리톨이라고도 함)을 배합한 “냉량가공(冷凉加工)” 소재의 기능성 내의로서, 면을 주성분으로 하는 기본 상품들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감소량을 메꿔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젊은이를 위한 “비타민 인너”, 기혼여성으로서 엽차의 성분으로 만든 “가테킨 인너” 등도 있다. 또한 스포츠용 인너에도 “스포츠·엑스”를

사용한 조온조습(調溫調濕) 효과도 있고, 항균방취, pH컨트롤의 효과가 있는
데산도의 “히프(HIFF)”도 천연성분 가공으로 상품화하고 있고, “만싱웨어”에
서 시판하고 있는 “언더웨어”는 원적외선(遠赤外線)효과가 있으며, 마이너스
· 이온 효과가 있는 투어말린(tourmaline) 광석의 가루를 프린트한 “이온 · 보
디즈” 등도 있다.